

동역자님께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자들이 주선하여 받은 복수비자(Multiple Visa)로 탄자니아에 들어왔습니다. 복수비자는 탄자니아 정부의 비자 제한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자 목사들이 자신들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청한 복수비자로 1년간 횡수에 제한없이 탄자니아에 들어와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UT 소식:** 미국 머서 대학(Mercer Univ.)의 앤토니 최 박사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미래 만들기 특강과 포럼(6.9-6.20)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새시대에 걸맞는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온가족과 함께 오신 최 박사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탄자니아 칼빈 신학교와 브룬디 방문:** 6월7일, 칼빈신학교 졸업식의 주빈으로 참석하여 11명의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제자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어 **브룬디 방문(6.12-16)**은 탄자니아 장로교(PCT)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를 시도한 올라프 목사의 브룬디 선교 실태 파악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사역을 허락한 PCT 교단장인 제임스 음겐다 목사와 사례 연구 차원에서 저와 후배인 온공현 선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빌려 가려 했으나 참가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방문 일정과 비용을 고려하여 항공편으로 6월12일 새벽에 탄자니아 서쪽 끝에 있는 키고마에 도착하여 거기서 올라프 목사와 합류한 후 탄자니아 국경까지 키고마 택시로, 거기서 브룬디 택시로 국경을 넘어 갔습니다.



브룬디는 참 아름다운 나라이나 탄자니아가 선진국으로 보일만큼 가난했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은행은 보이지 않고 환전상들이 몰려왔습니다. 달러보다 탄자니아 실링이 필요했는지 탄자니아 실링을 공식환율의 두배 이상 브룬디 돈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세관원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일자리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난자 Nyanza 에서 그동안 개척한 장로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20 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장로교회의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탄자니아에서 난민 사역을 하던 올라프 목사의 영향을 받은 난민 출신 고디 목사가 브룬디에 돌아오면서 올라프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들을 개척하여 브룬디 장로교단을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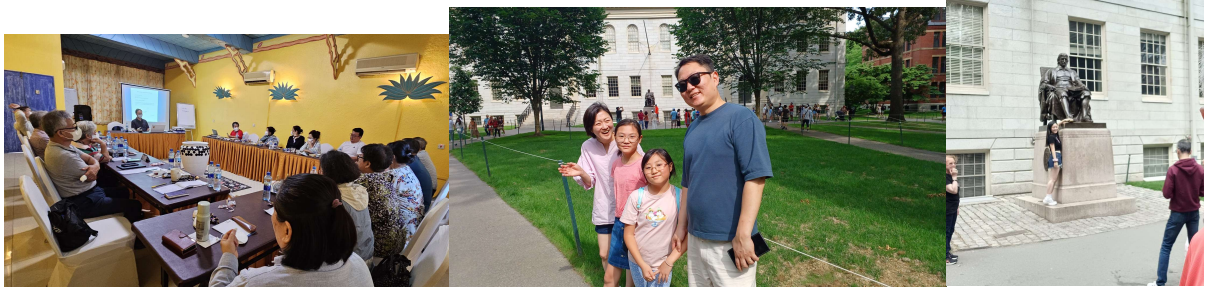
셋째 날부터는 개척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것은 복음의 열정은 있으나 목회자들의 교육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탄자니아장로교단장이자 칼빈신학교 학장인 제임스 음겐다 목사가 교단을 초월하여 On-line 시스템과 브룬디 현장에 찾아가 목회자 집중교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시에 브룬디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단과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브룬디에서 돌아오자마자 Korea church Mission 정기총회(6.17-19)에 참석하여 전체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 및 현안 토의를 하고 본인 역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탄자니아에서 은퇴자 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은퇴자 비자는 복수 비자에 비해 선교부의 추천으로 은퇴한 선교사가 2 년 동안 탄자니아에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목회자 자문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를 마치고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워싱턴에서 노숙자사역 하는 정진환 목사를 만나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경청할 수 있었고, 뉴저지에서 총신 동기들과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뉴저지 밀알 선교단 강원호 목사의 안내로 밀알 장애인 꿈터를 방문하여 장애자 사역에 이어 한국 은퇴 선교사 단지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큰 아들 이삭이도 은퇴하고 생활 대책이 없는 선교사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기도하고 있어 놀라웠습니다.

보스톤에 있는 MIT 와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면서 UAUT 와 칼빈신학교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되새기며 누구나 가고 싶은 하나님의 일군 양성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2025.7.15

탄자니아로 떠나면서

작은 자 이 진섭 드림

### 기도 제목

- 1, UAUT 와 탄자니아 칼빈신학교가 역량있는 국가 지도자를 배출할 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령이 함께하는 원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4. 10 여명에 이르는 장학생들과 제자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